

익산농촌 마을전자상거래 지원 확대

전년비 사업규모 4배 확대, 영세·고령농가 지원 농산물·관광상품 등 오픈마켓 통해 판매

익산시(시장 정현율)가 추진하고 있는 마을전자상거래가 농촌지역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소규모 농가들의 수익창출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익산시에 따르면 농가들이 생산하는 농·특산물과 농촌체험마을 관광 상품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마을전자상거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지난 3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 1억 9천여만 원을 투입해 지난달부터 IT전문가를 주축으로 판매 조직을 구성하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보다 4배 가량 확대된 규모이다.

이번 사업은 대형 입점소상공인 오픈마켓과 공동할인 소싱몰인 소셜 커머스의 유통망을 활용하고 익산시민들을 위한 지역 소싱몰을 동시에 운영함으로써 판매효율을 높이는 온라인 종합 유통플랫폼을 구성하는 내용이다.

이를 활용해 농가는 농·특산물은 물론 농촌체험과 관광, 숙박을 연계한 상품까지 유튜브와 페이스북, 블로그 등 다양한 SNS채널을 통해 홍보함으로써 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

농업인들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시는 북부와 중부, 동부, 남부 등 각 농촌지역 권역별로 IT마을도우미 4명을 배치해

개별 농가 또는 마을 판매상품들을 발굴하고 SNS를 활용한 홍보, 오픈마켓 입점 등 농가를 대신해 온라인 유통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선정된 전문대행사들이 중소·영세·고령·창업농 등을 중심으로 지원조건을 구체화하고 이들 대신 오픈마켓 판매와 홍보를 대행한다.

이번 사업에 입점을 희망하는 농가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주겠다.

오픈마켓 등에서 상품이 판매됐을 때 발생하는 최대 15%의 수수료와 농가 당 최대 200만 원의 택배비 뿐 아니라 온라인 상품 판매를 위한 사진 촬영, 상세 페이지 제작까지 지원된다.

이와 함께 온라인 입점을 위한 판매 상담을 IT 전문가로부터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지역 축제나 명절에 직거래 운영, 인터넷 동영상 홍보물

제작 등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소규모 농가들의 판로확보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농가는 입점신청서를 제출한 후 상품 컨설팅과 인터넷 제품 상세페이지 디자인 과정을 거쳐 입점할 수 있다.

정현율 익산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참여 농가들에게는 판로가 확대돼 실질적인 소득이 향상되고 온라인시장에 대응하는 자생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토대로 더 나아가 지역의 농촌체험마을의 브랜드 가치가 크게 향상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해 마을전자상거래 사업을 통해 농가를 대상으로 250건의 홍보·판매 컨설팅을 지원했고 10월부터 2개월 동안 오픈마켓에 11개 농가가 입점에 1억 4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익산=장영원 기자

'익산 푸드플랜' 정책방향 모색

현장포럼 개최... 내년부터 사업 본격화

익산시(시장 정현율)가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먹거리 순환시스템 구축을 위한 푸드플랜 사업 추진 기반을 강화한다.

시는 4일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푸드플랜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정명재 명예농업시장, 지역농업네트워크 최문식 본부장,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강성욱 센터장과 관내 농축산물 생산·유통·소비 분야를 논의 할 수 있는 지역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지역농업네트워크 최문식 본부장의 '푸드플랜 방향과 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익산 푸드플랜 정책 수립 및 구축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갔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해외 및 타 시도 선진 사례를 설명하고,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살린 익산시민의 성공적인 푸드플랜 정책,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정책, 단계적 정착을 위한 정책 등 체계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지역 주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푸드시스템 추진에 따른 일자리 창출', '소농을 위한 지역 순환 체계 구축' 등 다양하고 현실적인 의견들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익산시는 6월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착수해 올해 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세부 정책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익산형 푸드플랜 정착을 위해 다양한 시민주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만큼 시는 푸드플랜 정책 마련과 시스템 구축을 위해 단순한 생산과 소비를 넘어 복지, 보건,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주체들이 지속적으로 소통과 협력을 범시민적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명재 명예농업시장은 "익산시는 3만 명의 농산물 생산자만을 위한 농업이 아닌 30만 명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농업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푸드플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포럼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성공적인 푸드플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인원 기자



정현율 익산시장이 폴란드에서 개최된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에 참석했다.

정현율 시장, 세계유산도시 총회서 익산 알리기 분주

1일부터 4일간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 참가 개최도시 폴란드 크라쿠프와 우호 교류협력 협의

정현율 익산시장이 폴란드에서 개최된 세계유산도시기구(OWHC) 세계총회에 참석해 세계유산도시 익산을 알리고 세계유산 각국 대표단과 관광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정 시장은 지난 1일부터 4일간 폴란드의 역사도시 크라쿠프 국제컨벤션센터(ICE)에서 개최된 세계유산도시기구(OWHC) 세계총회에 참석해 각국 대표단들과 세계유산과 관광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세계총회는 세계유

산을 보유한 전 세계 93개국 315개 도시들의 총회로 2년마다 개최된다. 지난 2017년 경주시에 이어 올해 폴란드 크라쿠프에서 개최됐다.

이번 총회는 세계유산과 관광을 주제로 세계유산과 지역사회의 공존방식과 유산을 보존하면서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역사도시들이 직면한 과제를 논의하고 관광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각국의 경험과 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일에는 아태지역사무

처인 경주시 주최로 총회에 참여한 대한민국 12개 세계유산도시 대표단과 함께 크라쿠프 구시가지의 세계유산과 유적지들을 투어한 후 전 세계 회원도시 시장단이 참여한 개막식에 참석했다.

3일에는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하고 백제역사유적지구 홍보부스 등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정 시장은 환담에서 역사문화와 산업이 공존하는 두 도시의 공통점에 대해 공감하고 익산시와 크라쿠프 간 우호협력력을 제안했으며 관광활성화에 대한 행정의 역할과 정책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했다. /익산=장인원 기자

근대역사박물관 객원큐레이터 군산시, 11일까지 모집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오는 11일까지 박물관 객원큐레이터를 모집한다.

박물관 객원큐레이터는 지역의 민간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요하는 학예 분야에서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로, 박물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획 전시를 비롯해 미술작품 전시, 고문서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만18세 이상으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박물관학, 역사학, 미술사학, 민속학, 기록관리학 등 박물관 업무와 연관 있는 전공자를 우대 선발할 계획이다.

신청은 6월 11일까지 박물관 사무실로 방문접수하면 되고, 신청양식과 자세한 근무내용은 군산시 홈페이지나 역사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선발하는 객원큐레이터는 2기로, 지난해 선발된 1기 객원 큐레이터들은 현재 근대미술관, 정미갤러리, 시민갤러리에서 열리는 각종 미술전시에서 전문성을 갖고 동참하고 동학농민 기획전에서도 고문서 해석, 관련 유물 조사에 참여해 실무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박물관 관계자는 "박물관 객원큐레이터는 박물관 관련분야의 전문소양을 갖고 있는 시민들의 역량을 키우고자 객원큐레이터를 선발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장애인 스마트안전도시 시범사업 추진

군산시, 전동 보장구에 지능형 단말기·2CH카메라 장착

골고루 누리는 행복도시 군산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장애인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장애인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스쿠터 등)에 IT 단말기를 장착해 위기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6월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장애인을 돕기 위해 전동 보장에 지능형 단말기와 2CH카메라를 장착해 응급 상황을 사전에 판단

할 수 있게 하고 긴급 콜 기능과 블랙박스 기능이 있어 범죄나 탑승자의 신체에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관제센터와 제3자 또는 긴급출동 인력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사업주관사인 ㈜스타코어는 전동보장구에 적용되는 카메라, 긴급 콜 버튼, GPS 등 5종의 부자 장비를 시범기간 내에 무상으로 제공, 운영하며 사용자 위주의 편리성, 안정성을 점차 보강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우선 1차로 40명의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6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며 이후 추가 희망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추진

군산시가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하반기에 추가 실시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6월부터 추진할 하반기 사업에는 상반기(5억 6천만원/노후경유차 350대) 4배 정도의 21억6천만원 사업비로 1100대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까지 확대 적용된다.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7월부터 20일까지로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동의서와 차량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해 시 환경정책과 대기환경계(☎454-4463~4)로 직접 방문접수 하면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